

# 김부겸 총리, 서노송예술촌 방문

### 성평등전주 성과·모습 확인... 여성인권·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간담회 가져

김부겸 국무총리가 행안부 장관 재임 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조성된 성평등전주의 성과와 성평등전주를 통해 변화된 선미촌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인권과 예술을 통한 도시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전주 '서노송예술촌'을 방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행안부 장관 재임 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조성된 성평등전주의 성과와 성평등전주를 통해 변화된 선미촌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인권과 예술을 통한 도시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전주 '서노송예술촌'을 방문했다.

이날, 서노송예술촌에는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김장배 문체부 2차관, 송하진 전북도 지사가 함께 방문했으며, 성평등전주를 시작으로 예술서점인 '물결서사', 작은미술관인 '뜻밖의미술관' 등 빈집과 성매매업소를 매입해 조성한 거점공간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김부겸 총리는 마지막 방문지인 '뜻밖의미술관' 현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선희 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 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우정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상담소 부소장, 박정원 선미촌 정비 민간협력위원, 임주아 물결서사 대표, 장근범 뜻밖의미술관 센터장 등 선미촌 재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2014년부터 100여 회에 걸친 선미촌정비 민간협의회를 통해 선미촌 도시재생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관 주도가 아닌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결과 성 착취 공간이었던 선미촌을 '서노송예술촌'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서노송예술촌에서 운영 중인 사업의 성과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얘기하며 서노송예술촌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은 노

송예술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2000년대 초반 85개에 달했던 성매매업소가 대부분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며,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2017년 '전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여성인권 신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서노송예술촌'에 들어선 성평등전주, 새활용센터 다시봄, 대한너우스, 물결서사 등의 거점을 중심으로 인권향상, 공동체복원 및 도시혁신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생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제5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우수기관 선정, 2020년 문화체육부장

관상, 2020년 7차 도시재생 광역 협치 포럼 도시재생뉴딜 우수자자체상, 2021년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부겸 총리는 "전주시가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성매매 공간을 기억의 공간으로 남긴 도시재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노송예술촌의 변화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주민들과 문화예술가들의 협력, 여성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던 점이 주효했다. 곧바로 서노송예술촌 2단계를 추진해 대한민국 인권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

###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 국회 방문 예정위원·지역구 의원 만나 적극 요청

전주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의 삭감을 방지하고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설득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은 23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정위원과 지역구 의원실 등을 찾아 전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 주요사업들의 예산 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형배 부시장은 예정위 간사로 국

가예산 심사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 갑)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에게 국가 예산 지원에 대한 당부성을 피력했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정위 예산안조정 소위 신영대(전북 군산시)·김한정(경기 남양주시)·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정태호(서울 관악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대구 북구)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전주시 중점 추진사업 5건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인 김성주(전주시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연고 안호영(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윤준병(정읍시, 고창군), 이용호(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의원에게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주시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 '기생충' 촬영장소에 특수효과 스튜디오 조성

### 전주시, 2025년 12월까지 K-Film 제작 기반·영상산업 허브 구축사업 추진

전주시가 기존 컴퓨터그래픽에서 진일보한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와 음급실, 경찰관서 등 특수화 세트장을 조성해 한국영화산업의 부흥을 이끌 영화의 도시로 나아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38억2300만 원을 투입해 K-Film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영화 '기생충' 촬영 장소로 유명한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경우 현재 J1·J2 스튜디오와 야외세트장이 연 600일 이상 가동되는 등 서남권을 대표하는 영화 촬영 거점으로 성장했으나 특수효과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가 없어 영화 촬영기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VP)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J3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K-Film 특수화 세트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J3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의 경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화 촬영기술의 화두가 된 VFX 촬영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춘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다. VFX 촬영기술은 기존 CG(컴퓨터그래픽)에서 한 단계 진화된 특수효과 촬영기술로, 이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영화 '승리호'와 드라마 '빈센조'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국가예산 2억 원을 확보한 시는 J3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들어간 뒤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825㎡ 규모의 K-Film 특수화 세트장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 영상물의 필수 공간인 동 주민센터와 병원 음급실, 경찰관서 내부 세트장 등을 조성해 드라마와 영화 등 촬영 수요에 부응하고 촬영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K-Film 제작 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아날로그와 최첨단 디지털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국내 유일의 영화 촬영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디지털 융합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촬영시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공정무역도시' 로 도약

### 공정무역도시 전주 인증식·공정무역 활성화 협약식 가져

전주시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정무역도시로 도약한다.

시는 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회장, 김영선 전북대학교 교수, 허문경 전주대학교 교수, 정양성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유정인 전주신일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무역도시 전주 인증식 및 공정무역 활성화 협약식'을 가졌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대안 무역인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과파,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시는 지난달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국내 13번째이자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서 이날 인증식이 진행됐다.

공정무역도시 인증 기간은 오는 2023년 9월 22일까지다.

시는 인증식에 이어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주신일교회와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도 개최했다.

협약을 통해 각 단체와 기관은 △공정무역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회의 및 행사 시 공정무역 제품

적극 사용 △공정무역 판매 및 가공처 발굴 등에 협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무역 마을운동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인증식과 협약식에 이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공정무역 원데이 클래스, 공정무역 물품 전시·판매, 공정무역 사진전도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4월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닦았으며, 지난 2019년 9월에는 전주대학교 및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공정무역 활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에도 힘쓰는 결과 스타벅스 등 대기업 판매처를 제외하고 당초 인구 대비 목표치(인구 2만5000명 당 1개소)인 26곳을 넘는 31곳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 '시민의 숲 1963' 헌수 후원금 1억원 기부... 총 후원금 3억원 달해

지역 거점은행인 전북은행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숲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에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3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전주종합경기장에 1963그루의 나무를 심는 '시민의 숲 1963' 헌수 후원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2019년부터 협약에 따라 매년 1억 원씩을 '시민의 숲 1963' 헌수 후원금으로 기부해온 전북은행은 이날 기부로 현재까지 총 3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게 됐다.

이날 전달된 헌수금은 전주종합경기장에 1963그루의 나무를 심는 데 활용된다. 향후 시는 전북은행 기업숲을 조성하고, 식재된 나무 아래에 전북은

행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부착하기로 했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이번 헌수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길 기원한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